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설립 촉구 임실 김장페스티벌 주문량 급증

시, 4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국회의원회관서 결의행사·토론회 개최

남원시는 오는 4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2중앙경찰학교(이하 학교) 남원 설립 촉구 결의행사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고 학교의 남원 설립 필요성을 중앙 정부와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대규모 행사로, 전북 동북권 및 지리산권 지자체 주민 약 2,000명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는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사당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리며, 남원·장수·임실·순창을 지역구로 둔 박희승 국회의원을 비롯, 학교 남원 설립 지지 국회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최고위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최경식 남원시장,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등 정치권과 시민사회 주요 인사도 참석한다.

결의문에는 △경찰 교육기관의 충정

권 집중 해소 △영호남 내륙 중심지로서 남원의 입지 우수성 △지방소멸 대응 및 국가균형발전 실현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국가균형발전은 운명을 외치며, 수도권과 특정 지역에 집중된 공공 인프라의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고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균형발전의 원칙을 함께 다짐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균형발전에서 찾겠다는 국민적 의지를 집약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행사 직후인 14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학교 남원 설립 토론회를 개최, 이병현 지방시대위원회 5국 3특 특별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창운 경남대학교 교수(한국경찰학회장)가 ‘급변하는 치안환경 대응을 위한 경찰인재양성 인프라 구축 필요성’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진행한다.

패널토론에는 △윤태웅 박사(전국시

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원) △박종철 前 경찰대학교 교수 △김시백 박사(전북연구원) △한정민 경감(전북경찰직장협의회 정책국장)이 참여, 학교 설립의 정책적 필요성, 지역균형발전 효과, 경제적 분석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영호남 상생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의 상징적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남원시는 학교 유치를 통해 지역 간 교육 인프라 불균형 해소, 지방소멸 위기 극복, 영호남 내륙권 발전축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남원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는 신념 아래 학교 남원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전국에 확산시켜 지방이 주도하는 균형발전 시대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의 남원 설립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지방시대에 부합하는 공공 교육기관의 균형적 분산배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 김장페스티벌 주문량 급증

21~23일 개최… 현장 김장체험 사전접수 300팀 마감 임박

“더 저렴한 가격, 더 우수한 배추와 고추! 임실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 사전접수 서두르세요.”

배추 및 양념 재료 물가 상승으로 김장에 부담을 가지는 가정들이 급증하면서 맛이 좋고 품질이 우수하기로 잘 알려진 임실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을 찾는 소비자들의 참여 열기가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임실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은 축제 현장에서 김장을 하는 ‘김장체험’과 택배 배송이나 현장수령(드라이브 스루)으로 절임 배추와 양념을 받아볼 수 있는 ‘판매행사’로 진행된다.

군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임실치즈페스티벌에서 진행되는 현장에서 배추를 버무려 가져가는 김장체험 선착순 사전예약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마감에 임박하고 있다.

또한 절임배추와 양념세트 주문 사전예약은 11월 14일까지 접수하고 있으며, 사전예약자에게는 택배 또는 현장수령 중 선택이 가능하다.

사전 예약 시작 5일 만에 총주문량은 36톤(절임 배추 25톤, 양념 11톤)으로 예상보다 이른 시일 내 주문량이



증가하고 있어 신청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서둘러야 한다.

올해로 10번째를 맞이한 임실 아삭 김장페스티벌은 2016년에 처음 열린 이래 청정임실에서 재배한 배추와 고추 등 지역농산물을 사용해 품질과 맛이 뛰어나고 편리하게 김치를 담글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심 민 군수는 “고물가 등으로 김장을 부담스러워하는 소비자들이 많은 것 같다”며 “우리 군 신덕면에서 자란 우수한 배추와 최고를 자랑하는 임실 고추, 각종 채소, 재료들로 만들어진 양념 등이 갖춰진 임실 김장페스티벌에 많이 참여하셔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손쉽게 김장을 하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 코리아 떡볶이 페스타 개최

15~16일 28개 프로그램 진행

순창군이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순창발효테마파크 일대에서 ‘2025 순창 코리아 떡볶이 페스타’를 개최한다.

재단법인 순창발효관광재단이 주관하고 순창군이 후원하는 이번 축제는

순창의 대표 특산품인 고추장을 활용한 다양한 떡볶이 콘텐츠를 통해 지역 정류문화와 미식 자원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 총 5개 분야 28개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고등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한 미션 런 이벤트 ‘날

려라 떡볶킹’, 일반 참가자들의 창의력 대결 ‘떡볶이 대결’, 떡볶이·분식 판매존, 순창 11개 읍·면 주민 참여 읍·면 떡볶이 판매 부스 등이 마련됐다.

또한, 유명 셰프 레이먼 김이 참여하는 쿠킹클래스 ‘I’m Fine 떡볶이’와 안유성 셰프 참여 ‘떡볶이 연구소’가 진행되며,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떡볶이 만들기 체험, DIY 밀키트 제작, U 캐리어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풀줄이 떡볶이 열차 체험 등도 상시 운영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의회 연구회, 신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

남원시의회 신재생에너지 자립도시 건설로 시민의 노후가 행복한 남원 연구회(대표의원 김길수)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주제 발표에서 전북대 신기현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동향과 자립도시 사례를 소개하고 남원시 추진 방안을 제시했으며, 김길수 의원은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가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방식 즉, 데이터센터 등 기업 유치와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이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방안 모색에 집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의회, 제298회 임시회 폐회

순창군의회(의장 송중식)는 지난날 31일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순창군 고독사 예방 및 1인 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10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 동안 의회는 1억 원 이상 주요사업장과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장 20개소를 대상으로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과정에서 공공하수처리장 임금 미지급 민원, 각종 공사 시 관내 업체 참여 확대,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현안사항을 점검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총 22개 부서에 대해 시정 9

건, 개선 156건, 건의 62건 등 총 227건의 의견을 제시했다.

주요 개선 과제로는 장애인복지관 급식 단가 개선, 가잠 회전교차로 구조 보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관리,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 관리 강화 등이 포함됐다.

송중식 의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군민의 시각에서 행정을 점검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뜻깊은 과정이었다”며 “실태조사와 감사에서 도출된 의견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가 끝까지 점검하며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북대 출신 언론인들이 지난날 31일, 남원시를 방문해 전북대 남원글로벌캠퍼스 조성 현장을 둘러보고, 지역과 대학의 상생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전북대 출신 언론인들, 남원 글로벌캠퍼스 현장 방문

남원시는 전북대 출신 언론인들이 지난날 31일, 남원시를 방문해 전북대 남원글로벌캠퍼스 조성 현장을 둘러보고, 지역과 대학의 상생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전북대와 남원시가 공동 추진 중인 남원 글로벌캠퍼스 조성 사업의 주요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지역 혁신 모델로서의 발전 비전과 언론의 협력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원글로벌캠퍼스는 2023년 교육부 글로벌대학30 사업에 선정된 전국 선도 모델로, 남원시가 매입한 옛 서남대학교 부지에 2027년 3월 개교를 목

표로 설립을 추진 중이다.

전북대 언론인들은 캠퍼스 예정 부지에서 △조성 현황 보고 △남원시 설립추진상황 설명 △언론인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전북대 관계자, 최경식 남원시장과 시관계자, 전북대 출신 언론인 12명 등 50여명이 참석해 지역과 대학이 함께 만들어 가는 비전을 나눴으며, 행사 이후 참석자들은 서남대 본관과 체육관 등 리모델링 예정 시설을 둘러보며 캠퍼스의 구체적인 공간 조성 계획과 향후 학생 유치 전략을 확인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 통

남원국제드론제전 참여 15개 업체, 수익금 일부 기탁

남원시는 지난 10월 16일부터 나흘간 열린 2025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에 참여한 푸드트럭 중 관내 업체를 중심으로 수익금의 일부인 200만원을 춘향장학재단에 기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참여 업체는 관내에 소재를 둔 전국푸드트럭소상공인협회 소속 총 15개 업체로, 드론제전 기간 동안 남원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먹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축제의 흥을 더했다.

특히 이번 기부는 “지역 축제에서 얻은 수익을 다시 지역 청소년을 위해 환원하자”는 취지에 공감하며, 자발적으로 기부에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

푸드트럭 관계자는 “이번 드론제전을 통해 시민들의 따뜻한 호응을 느꼈다”며 “행사 수익금 일부를 지역 인재 양성에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중증장애인 생산품 전시·판매행사 개최

임실군(군수 심 민)과 전북자치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최옥숙)이 지난날 30일 임실군청 로비에서 2025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순회 전시·판매 행사를 개최했다.

전북자치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장애인 자립 기반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 장애인 생산품 EM 세제, 복사 용지, 구운 소금, 자른 미역, 육포, 제과제빵, 누룽지 등 다양한 물품을 판매했으며, 현장에서 부서별로 구매 예약을 하기도 했다.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 유지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해 기관 총 구매액의 1.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의무 구매해야 한다.

심 민 군수는 “이번 판매행사를 통해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장애인의 자활, 자립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